

해외의약뉴스

면역억제제인 마이코페놀산은 유산이나 선천적 기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신장이식 환자가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인 마이코페놀산은 유산이나 선천적 기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전에 마이코페놀산을 중단한 여성은 임신기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여성에 비하여 정상출산의 비율이 높고 유산이나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는 비율은 낮았다.

키워드

신장이식, 마이코페놀산, 임신부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이식 환자가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인 마이코페놀산은 유산이나 선천적 기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임신 전에 마이코페놀산의 복용을 중단한 163명의 이식환자와 이 약의 복용기간 동안 임신한 114명의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임신 전에 마이코페놀산의 복용을 중단한 여성은 임신기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여성에 비하여 정상출산(79% vs 43%)의 비율이 높고 유산(19%vs52%), 선천적 기형(6% vs 14%)이 발생한 비율은 낮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약과 임신/출산의 위험성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하였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연구의 데이터와 결론은 저널에 피어리뷰(peer-review)로 게재되기까지의 기초적인 연구로써 봐야한다고 전했다.

연구자인 Serban 박사(Temp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는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앞으로 새로운 면역억제제가 개발되더라도 전문 의료진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신장이식 환자들의 잠재적 위험성을 밝혀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개인의 의료진들과 이식 센터에서도 장기이식 환자들의 임신 노출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National Transplantation Pregnancy Registry에 보고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 원문정보 ■

<http://consumer.healthday.com/disabilities-information-11/misc-birth-defect-news-63/briefs-emb-10-23-5pmet-transplant-drugs-pregnancy-asn-meeting-release-batch-981-681329.html>